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34. 꼬마 기차

우리는 기념품 가게 구경을 마치고 겨울 햇볕이 가득 내리쬐고 있는 소코도베르 광장으로 나왔다. 가이드 안내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버스 시간까지 약 세 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다. 전망대로 다시 올라가 '톨레도의 풍경' 을 한 번 더 보려던 계획대로 '꼬마 기차' 를 찾기 시작했다. 광장 한구석에 있는 관광객 안내 사무실에 들어가 어디로 가면 꼬마 기차를 탈 수 있냐고 물어 보았다. 데스크에 앉아 있던 남자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밖을 가리켰다.

꼬마 기차 티켓은 광장 한가운데서 집시같은 차림의 작고 피죤한 중년 아줌마가 앞치마에 넣어 놓고 팔고 있었다. 아까 분명히 지나쳤는데 잡상인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티켓을 사면서 꼬마 기차 시간을 물어 보았다. 10분 후에 떠나는 기차가 있다고 한다. 부리나케 티켓을 두 장 사서 집시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광장 한쪽의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름 그대로 올망졸망한 꼬마 기차가 길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검색해 보았을 때 꼬마 기차를 타려면 오른쪽으로 타야 전망이 잘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얼른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좌석 앞에는 오디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자 원하는 언어로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설치된 16개국 언어 중에 한국어도 있었다. 우리는 아까 할머니 가이드와 함께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디오 없이 가기로 했다.

잠시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왼쪽에 돌로 만든 성같은 높은 건물이 있어서 뭔가 살펴 보았다. 벽에 작은 현관이 붙어 있는데 '알카사르 데 톨레도, 무세오 델 에헤르시토 (Alcazar de Toledo, Museo del Ejercito)' 라고 써 있었다. 아, 여기가 톨레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알카사르로구

나! 전망대나 '톨레도의 풍경' 그림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곳 오른쪽에 4개의 뾰족한 탑이 솟아 있는 직사각형 건물이 알카사르이다. '알카사르' 는 아라비아어로 '성' 이라는 말인데 말그대로 3세기 로마 시대부터 톨레도의 위정자가 머무르던 성이었다. 십수 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보수 작업을 거치다가 스페인 내전 당시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 건물은 1939년부터 1957년에 걸쳐 재건축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무세오 델 에헤르시토', 즉 무기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지금부터 올라갈 전망대에서 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알카사르의 뒤편을 좌석에 앉아 올려다보고 있는 동안 꼬마 기차가 털경거리면서 출발했다. 언덕을 올라가고 골목을 돌며 아까 관광버스가 가던 길을 달그락거리면서 열심히 간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정취가 있어서 R과 나는 느긋하게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했다.

드디어 다시 전망대에 도착했다. 꼬마 기차 승객들이 우루루 내렸다. 이번에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한다. R과 나는 다시 한 번 '톨레도의 풍경' 앞에 섰다. 하얀 구름이 얇게 떠 있는 파란 하늘 아래 언덕 위에서 서 있는 톨레도 옛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찬찬히 바라보니 아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점이 보였다. 엘 그레코의 '톨레도의 풍경' 그림 속에서 두 축이 되는 오른쪽의 알카사르와 왼쪽의 대성당은 가까이 붙어 있는데 다시 보니 실제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림의 구도를 위해 거리를 압축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도의 압축 외에는 다를 것이 없는 이 풍경 속에 엘 그레코는 영혼을 불어 넣었다. 중세의 신비와 종교적 열정이 드리운 옛 톨레도의 모습을 그렇게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그대로 기록해 남겼다.

엘 그레코는 이 풍경을 그리기 위해 이 높은 언덕까지 걸어서 올라 왔을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키가 크고 여윈 노화가 화구를 들고 휘청휘청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는 얼얼히 좋아하는 그리스인 화가의 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언제나 사랑했던 그림 속의 풍경을 내 눈앞에 실제로 보았다. '여한이 없다' 라는 생각이, 그리고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밀려 왔다. 눈물이 고여오는 두 눈을 가만히 깜박이며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꼬마 기차가 떠날 때까지 '톨레도의 풍경' 앞에 오래 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회사를 취급하여 손님께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물리치료 (PT)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작업치료 (OT)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언어치료 (ST)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ANG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돼지국밥


갈비탕


육개장


족발


보쌈


감자탕

설렁탕 / 도가니탕
감자탕 / 선지해장국
뚝배기 불고기
순대접시 / 순대전골
순대볶음 / 감자탕 전골

설렁탕 육수 판매 \$6.99



부에나팍점 Open: 10am~9pm
714. 266. 0309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 680. 9550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